

# 옷의 主治·效能·修治法에 關한 小考 - 11종 한약서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M·H 통합암센터 한방내과<sup>1</sup>  
엄석기<sup>1</sup> \* · 김경석<sup>1</sup>

## On Estimation of Indication, Property and Processing of *Rhus Verniciflua Stokes*

Eom Seok-ki<sup>1</sup> \* · Kim Kyung-suk<sup>1</sup>

<sup>1</sup>M·H Integrative Cancer Center, East-West Neo Medical Center, Kyunghee University

Based on 11 Classics of Materia Medica designa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lletin 1995-15 as legal basis in scope and preparation of herbal prescription, we reviewed indication, property and processing of *Rhus Verniciflua Stokes* which appear extensively in literature since earlier Joseon Dynasty. Following is the conclusion of this review after comparing with 'Korean Pharmacopoeia: commentary on herbal product standard'.

1. The properties of *Rhus Verniciflua Stokes* in 'Korean Pharmacopoeia :commentary on herbal product standard' should be changed as 'Tonifying the middle, restoring the muscle, fulfilling marrow, breaking old static blood, tonifying and activating after removing mass, unblocking the meridian, killing worms' and indication should be changed as 'Old static blood, deep rooted mass, wind-cold-dampness arthralgia, cough, 9 types of chest pain, abdominal or flank accumulation of stagnated qi[氣], amenorrhea, hernia mass, small bowel or bladder colic pain, abdominal pain due to worm accumulation'.

2. The processing of *Rhus Verniciflua Stokes* in 'Korean Pharmacopoeia: commentary on herbal product standard' should include 'natural drying or steaming drying followed by grinding and stir-baking until ripened or smoking appears'.

**Key Words** : *Rhus Verniciflua Stokes*, aggregation-accumulation, static blood, Fixed mass in abdomen

## I. 序 論

\* 교신저자 : 엄석기,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M·H 통합암  
센터 한방내과,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겸  
임교수, 02-440-6254.

E-mail : sku0808@hanmail.net

접수일(2008년 4월 25일), 수정일(2008년 5월 10일), 게재확  
정일(2008년 5월 16일)

옷나무는 중앙 아시아 고원지대가 원산지이며 동  
양에 분포되어 있는 특산물로 중국에서는 약 4000여  
년 전부터 이를 재배하여 왔으며, 특히 한반도에서는  
발견된 옷칠의 흔적으로 보아 청동기말기인 B.C 3세  
기경부터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sup>

옷(漆)은 채취된 生漆을 그대로 이용하여 주로 방

수성과 내구성의 목적인 자연도료로 사용하거나<sup>2)</sup> 혹은 法制한 乾漆을 사용하여 丸, 散, 湯藥, 外用藥으로 조제하여 瘀血, 積聚, 癥瘕 및 冷心痛 등의 치료에 활용하였는데 옷나무의 뿌리, 뿌리껍질 및 줄기껍질, 心材, 잎, 종자 등도 약용으로 사용한다.

옷(漆)을 藥材로 사용한 최초의 기록은 AD 1C경의 저서로 추정되는 『神農本草經』 卷1 木部 上品藥에 나타난다. 『神農本草經』에서는 乾漆의 주치를 筋骨을 이어주고 腦髓를 강하게 하고 痺症을 치료하는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으며, 生漆은 長蟲을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長服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3)</sup> 중국에서는 『神農本草經』 이래로 각종 본초서적에 기록이 나타나며, 明代의 『本草綱目』에 역대 문헌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고려증기에 간행(13세기중반)된 鄉藥救急方 중에 최초의 기록<sup>4)</sup>이 나타나며, 조선초기에 향약연구를 총정리한 『鄉藥集成方』과 그 이후의 『東醫寶鑑』과 『濟衆新編』 등에 관련 내용이 나타난다.

옷(漆)에 대한 증설연구로는 ‘건칠에 대한 문헌적 고찰<sup>5)</sup>’, ‘옷에 대한 문헌적 고찰<sup>6)</sup>’, ‘건칠의 해독방법에 대한 문헌연구<sup>7)</sup>’, ‘옷나무와 옷 이용의 역사적 고찰<sup>8)</sup>’ 등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 歷代의 여러 문헌에 기록된 옷(漆)의 기원식물 명칭 산지 성상 성미 귀경 주치 부작용 해독법 수치 등이 보고 되었다. 그러나,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에 관한 법적 기준이 되는 11

종 한약서를 중심으로 한 주치와 효능 및 수치에 관한 문헌고찰은 없었다.

이에 저자는 11종 한약서를 중심으로 乾漆에 관한 主治와 效能 및 修治法을 고찰하여 임상활용 및 관찰 연구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한의원 혹은 한방병원에서 원내조제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에 관한 법적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30호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중의 9. “한약서”라 함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 1995-15호, '95.3. 15)”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약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약성가, 사상의학을 말한다는 규정이며, 이 조문에 근거하여 11종 한약서(한국 및 중국)에 수록한 한약재 및 한약처방은 한의사가 임상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원내 조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sup>9)</sup> 따라서 11종 한약서에 수록한 주요 한약재 및 한약 처방에 대한 주치와 효능 및 수치법에 대한 고찰은 법적 기준에 근거한 임상실천 및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sup>10)</sup>를 위한 기초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약성가’는 『만병회춘』과 『수세보원』에 기초하여 증보한 『제중신편』의 「약성가」와 『제중신편』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의중손익』, 『방약합편』의 「약성가」를 포함한 설정으로 보이나 11종 한약서 중에 『제중신편』과 『방약합편』이 겹치고, 『의중손익』의 「약성가」 또한 『제중신편』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중복

9)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조제지침서”에 수록한 처방만 사용할 수 있다.

10) 한의학적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를 통하여 역대 문헌에 수록된 주치와 효능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며, 또한 새로운 임상관찰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는 연구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관찰연구 혹은 실험 연구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1) 朴官宇. 옷나무와 옷 利用의 歷史的 考察. 상지대학교 대학원 임학과 석사논문. 2005. p.24. pp.1-9.  
 2) 朴官宇. 옷나무와 옷 利用의 歷史的 考察.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p.11.  
 3) 作者未詳, 孫星衍 輯本. 神農本草經. 醫道韓國社. 1976. p.40. “乾漆 味辛溫 無毒 主絕傷 補中續筋骨 填髓腦 安五臟 五緩六急 風寒濕痺 生漆去長蟲 久服輕身耐老”  
 4) 3곳에 걸쳐서 기록이 나타난다. 그러나 향약 180종에 대한 俗名, 藥味, 藥毒 및 採取方法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方中鄉藥目草部’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5) 송미선, 김윤상, 임은미. 건칠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2. 15(1).  
 6) 김태희, 이경민, 권기록, 최성모. 옷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약침학회지. 2002. 5(1).  
 7) 李在鎬. 乾漆의 解毒方法에 대한 文獻研究. 상지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논문. 2004.  
 8) 朴官宇. 옷나무와 옷 利用의 歷史的 考察. 상지대학교 대학원 임학과 석사논문. 2005.

된다. ‘사상의학’은 『동의수세보원』과 일부 내용이 겹치며, 사상의학이라는 용어로 설정할 수 있는 서적이 명확하지 않다. ‘동의수세보원’은 龔廷賢의 『수세보원』으로 보는 견해<sup>11)</sup>와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으로 보는 견해<sup>12)</sup>가 있다.

저자는 옷나무에 관련한 건칠, 생칠, 칠엽, 칠목, 칠자 등의 검색어를 설정한 후, 11종 한약서 중에서 약성가와 사상의학을 제외하고, 현재의 법조문 내용에 의거한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을 포함한 9종 한약서를 중심으로 검색하였으며, 검색한 내용 중 주치와 효능 및 수치법에 관한 내용을 서적별로 정리한 후 주치와 효능 및 수치법에 대한 시대별 변천 과정을 고찰하여 정리하였으며, 이 내용을 「대한약전의 한약규격주해」 중의 건칠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 III. 本論과 考察

#### 1. 11종 한약서의 수록 유무

11종 한약서(한국 및 중국) 중에서 약성가와 사상의학을 제외한 9종 서적(한국 6종, 중국 3종)에 수록된 옷(漆)에 관한 本草 분야의 기록 유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한국의 한약서 중에서는 『동의수세보원』을 제외

11) 신현규 등은 11종 기성한약서의 수세보원은 명대 龔廷賢의 수세보원이며,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 1995-15호, '95.3.15)으로 정한 11종 한약서(한국 및 중국) 중 동의수세보원은 수세보원의 오류라고 하였으며, 또한 사상의학을 동의수세보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여, 수세보원과 동의수세보원을 모두 기성한약서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신현규, 황대선, 권삼수, 김용진. 기성한약서 11종의 기원에 대한 서지학적 근거와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1). pp.110-111.) 그러나, 현재까지 개정안을 법규정에 반영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12) 대한한약협회백년사에서는 수세보원은 동의수세보원의 오기이며, 만약 수세보원이 맞다면 龔廷賢의 저서로는 차라리 만병회춘이나 고급의감이 더 선호되는 서명이라고 하였다. (신현규, 황대선, 권삼수, 김용진. 기성한약서 11종의 기원에 대한 서지학적 근거와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1). p.110.)

한 5종 서적에 기록이 나타나는데, 『광제비급』만이 5개 처방의 구성약재로서 소개되고, 기타 서적에서는 본초의 한 항목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특히, 『鄉藥集成方(1433)』에서는 鄉藥本草概論 중의 한 항목으로써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211종 약제에 대한 修治法을 수록한 ‘諸品藥石炮製法度’ 중의 木部에 乾漆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鄉藥集成方』 전권에 걸쳐서 20여 항목 이상에서 乾漆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鄉藥集成方』이 편찬된 1400년대 전후로 乾漆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국내 6종 한약서의 수록 여부에 대한 기초정보 검색과 『鄉藥集成方』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간단한 고찰 만으로도 옷(漆)은 고려중기부터 조선초기의 향약 의학시기 이래로 근현대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하던 전통적인 약제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의 한약서 3종에서는 모두 本草의 항목에 기록이 나타나며, 明代의 『本草綱目』에 역대 문헌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 2. 主治와 效能

11종 한약서에 기재된 옷(漆)의 효능과 주치에 관한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鄉藥集成方』(1433)에서는 “味辛 溫 無毒 有毒 主 絕傷 補中 續筋骨 填髓腦 安五藏 五緩六急 風寒濕痺 療效嗽 消瘀血 痞結 腰痛 女子疝瘕 利小腸 去虻蟲 ○ 生漆去長蟲 久服輕身耐老 生川谷 夏至後採 乾之 半夏爲之使 畏鷄子 今又忌油脂<sup>13)</sup>”라고 하였는데, 神農本草經의 “味辛溫無毒 主絕傷補中續筋骨 填髓腦 安五藏五緩六急 風寒濕痺 生漆去長蟲 久服輕身耐老 生川谷”에 비하여 名醫別錄에 수록된 乾漆의 主治<sup>14)</sup>인 “해수를 치료하며 어혈과 비결 및 요통과 여자의 아랫배 혹은 뱃속이 아픈것을 해소시키며 소장을 이롭게 하고 회충을 제거(療效嗽 消瘀血 痞結 腰痛 女子疝瘕 利小腸 去虻蟲 生漢中 夏至後採 乾之”

13) 『鄉藥集成方 卷第八十·木部·上品』 중에서<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검색(<http://jisik.kiom.re.kr/>)>

14) 陶弘景 集. 尚志鈞 輯校. 名醫別錄(輯校本).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6. p.37. “有毒 療效嗽 消瘀血 痞結 腰痛 女子疝瘕 利小腸 去虻蟲 生漢中 夏至後採 乾之”

疝瘕 利小腸 去虻蟲)”하는 효능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本草經集註에 수록된 건칠에 대한 相使 相

국적	書名	時代	年度	本草의 해당 항목	본초검색 내역
한국	향약집성방	조선	1433(세종15년)	卷第八十 木部 上品	乾漆 生漆
	동의보감	조선	1613(광해군5년)	湯液篇 木部	乾漆 生漆
	광계비급	조선	1790(정조14년)		乾漆 漆木
	제중신편	조선	1799(정조23년)	藥性歌 / 癰疽	乾漆
	방약합편	조선	1884(고종21년)	藥性歌 喬木	乾漆
	동의수세보원	대한제국	1901(광무4년)		無
중국	의학입문	明	1575	本草分類 治燥門	乾漆
	본초강목	明	1596(萬曆24년)	卷三十五上 木之二	漆(乾漆,生漆,漆葉,漆子)
	경약전서	明	1624	卷四十九 本草正 下 水石草部	乾漆

표 1.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11종 한약서 중의 옷(漆)에 관련한 약재 검색

畏의 내용인 “半夏爲之使 畏鷄子<sup>15)</sup>”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1575)에서는 “辛溫 毒而益 破久瘀血年深積 治痺止咳及心痛 利疝祛蟲通經脈 …… 東垣云 破日久閉結之瘀血 削年深堅固之沈積 兼治五緩六急 風寒濕痺 止咳嗽及九種心痛 腹助積滯氣 小腸膀胱 疝痛 去虻蟲 通經脈 丹溪云 屬金而有水與火 性急能飛 補用之中節 積去後補性內行 故經曰 補中續筋填髓 日華云 治傳尸 生者去長蟲<sup>16)</sup>”이라 하였는데, 『신농본초경』과 『향약집성방』에 대비하여 오래된 瘀血과 심한 積을 없앨 수 있고, 九種心痛을 치료하며 經脈을 소통하는 효과가 있으며, 적취가 없어진 후에는 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는 12- 14세기 금원시대의가의 임상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本草綱目』(1596)에서는 “乾漆 療咳嗽 消瘀血痞結 腰痛 女子疝瘕 利小腸 去虻蟲(別錄) 殺三蟲 主婦人經脈不通(甄權) 治傳尸勞除風(大明) 削年深堅結之積滯 破日久凝結之瘀血(元素)<sup>17)</sup>”라 하였는데, 부인의 經脈不通을 다스린다고 하여 ‘通經脈’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히 하였으나, 『의학입문』의 기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한편, 오래된 瘀血과 심한 積을 없앨 수 있다는 기록은 珍珠囊<sup>18)</sup>의 “乾漆 味辛 平 性溫

無毒 降也 陽中陰也 其用有二 削年深堅結之沈積 破日久閉繩索之瘀血<sup>19)</sup>”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의학입문』에서는 ‘東垣云’이라 하였고 『본초강목』에서는 元素의 글이라고 하였는데, 『의학입문』이 ‘東垣云’이란 표현은 『東垣珍珠囊』이라는 『潔古珍珠囊』의 異名에서 온 혼란으로 보이며, 元素의 『潔古珍珠囊』을 원출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東醫寶鑑』(1612)에서는 “消瘀血 主女人經脈不通及疝瘕 利大小腸 去虻蟲 破堅積 止血暈 殺三蟲 治傳尸勞<sup>20)</sup>”라 하였는데, 血暈을 그치게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각각의 주치를 간단명료하게 표현하였다.

『景岳全書』(1624)에서는 “味辛 性溫 有毒 能療絕傷 續筋骨 殺三蟲 去蛔蟲 削年深堅結之積滯 破日久凝聚之瘀血 用須炒熟入藥 不爾損人腸胃<sup>21)</sup>”라 하였는데, 금원대의 의견을 반영한 효능이 정리되는 것을 보여준다.

15) 陶弘景 撰. 本草經集註. 상해. 中國古典醫學叢刊. 1986. p.84.  
 16) 李樾 編纂.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85. pp.801-802.  
 17) 李時珍 撰. 本草綱目. 文淵閣四庫全書(774).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50.

18) 珍珠囊은 湯液本草에 나오는 것으로서, 왕호고의 1239년 서문에는 潔古老人의 珍珠囊에서 나왔다고 하였는데 ‘珍云’이라 한 부분에 해당한다. 그 다음 元代의 杜思敬의 濟生拔粹에도 珍珠囊이 나오는데 두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明代에 다시 東垣珍珠囊이 나왔는데 이에 대하여 本草綱目中서 李時珍은 본래 張元素의 저작이고, 후인들이 기억하기 편하도록 고친 것을 東垣珍珠囊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19)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珍珠囊藥性賦(東垣醫集).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1057.  
 20)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7. p.739.  
 21) 張介賓 撰. 景岳全書. 文淵閣四庫全書(778).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386.

『廣濟秘笈』(1790)에서는 주로 부인문과 응저문의 처방 구성내용 중에서만 기록이 나타난다.

『濟衆新編』(1799)의 藥性歌에서는 “乾漆辛溫 通經破癥 追積殺蟲 效如奔馬 마른옷 炒用<sup>22)</sup>”이라 하였고, 『方藥合編』(1884)의 藥性歌에서는 “乾漆辛溫主殺蟲 通經破癥追積聚<sup>23)</sup>”이라 하였는데, 기존의 주치와 효능을 간단명료하게만 표현하고 있다.

위의 한약서에 수록된 내용을 고찰해 보면, 옷(칠)에 대한 주치와 효능은 AD 1C 『신농본초경』에 “乾漆은 骨을 이어주고 腦髓를 강하게 하고 痺症을 치료하며, 生漆은 長蟲을 치료하며 長服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노화를 예방한다”고 수록된 이래로, 5C 도홍경의 名醫別錄에서 ‘해수를 치료하며 어혈과 비결 및 요통과 여자의 아랫배 혹은 뱃속이 아픈 것을 해소시키며 소장을 이롭게 하고 회충을 제거한다’는 내용이 1차 추가가 되며, 12-14C 금원시대에 元素와 丹溪에 의해 ‘오래된 瘀血과 심한 積을 없앨 수 있고, 九種心痛을 치료하며 經脈을 소통하는 효과가 있으며, 적취가 없어진 후에는 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2차 추가가 되며, 17C초의 『동의보감』에서 ‘血量을 그치게 한다’는 내용이 3차 추가되며, 그 이후로 특별한 변화가 없다. 이러한 주치와 효능의 추가는 神農本草經의 주치와 효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名醫別錄에서 1차 추가한 瘀血 痞結 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각각의 주치와 효능에 대한 機轉 설명 과정과 이를 통한 효능의 재추가 과정 등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부인과 질환에서의 어혈과 적취에 대한 치료를 通經絡의 기전으로 설명한 것이나, 年深堅結之積滯와 日久凝聚之瘀血의 치료효과를 설명하면서 한편으로 『신농본초경』의 “補中續筋骨”에서 연원한 문장을 사용하면서 적취가 제거된 후에는 補하는 효과가 있다(補用之中節 積去後補性內行)고 설명하여 攻補兼施의 약재임을 밝히는 것 등에서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볼때, 11종 한약서에 기록된 옷(漆)의 주치와 효능은 첫째, 補中續筋骨 填髓腦 安五臟 久服

輕身耐老 등으로 설명한 上品藥으로써 주로 생명을 養하고 天에 應하여 多服 久服하여도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고 輕身 不老延壽하는 효과, 둘째, 破久瘀血 年深積하면서 積去後補性內行하여 적취와 어혈의 치료에서 攻補兼施할 수 있는 효과, 셋째, 어혈과 적취의 치료효과로써 겸하여 風寒濕痺, 止咳嗽及九種心痛 腹肋積滯氣를 다스릴 수 있는 효과, 넷째, 通經脈으로 女人經脈不通及疝癩 小腸膀胱疝痛 去虻蟲할 수 있는 효과, 다섯째, 生用하여 長蟲을 제거하는 효과 등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현행	개선	비고
효능	祛瘀破癥	補中 續筋 填髓	추가 추가
	通經 殺蟲	破久瘀血年深積 積去後補性內行 通經脈 殺蟲	내용변경 추가 내용변경 동일
주치	瘀血阻滯	久瘀血 深積 風寒濕痺 咳嗽 九種心痛 腹肋積滯氣	내용변경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經閉	經閉 疝癩 小腸膀胱疝痛	동일 추가 추가
	蟲積腹痛	蟲積腹痛	동일

표 2. 「대한약전의 한약규격주해」중의 건칠의 주치와 효능 개선안

주치와 관련한 최근의 문헌연구에서 乾漆은 行血 止血 殺蟲 消散積滯 시키는 작용으로 부인의 瘀血性 疾患과 瘀血腰痛 風寒濕痺 冷心痛 위장질환 및 암 등의 종양성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破宿하는 힘이 강하여 瘀血年深積 日久凝結之瘀血 등 오래된 瘀血에 效能이 뛰어난 것으로 언급되며, 항암 항산화 숙취해소 위염억제 解痙작용 止血작용이 있으며 피부염을 일으키는 주성분을 배제한 추출물에서도 항암 항산화활성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sup>24)</sup> 또

22) 康命吉 著. 김신근 주편. 한국의학대계(18)濟衆新編. 여강출판사. p.593.

23) 黃度淵 原著. 南山堂 編輯局譯. 對譯證脈 方藥合編(辨證增補版). 서울. 남산당. 1987. p.230.

24) 송미선, 김운상, 임은미. 건칠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2. 15(1). pp.60-76.

한, 『東醫寶鑑』에 기재된 乾漆 사용례를 검토해 보면, 乾漆은 積聚門 血門 蟲門의 순으로 빈도가 높게 사용되었다.<sup>25)</sup> 이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에 관한 11종 한약서에 기록된 瘡(漆)의 주치 및 효능과 큰 차이가 없다.

『대한약전의 한약규격주해』에서는 건칠의 효능을 ‘祛瘀破癥 通經 殺蟲’이라 하였고 주치는 ‘瘀血阻滯 經閉 蟲積腹痛’이라 하였는데 이는 11종 한약서에 기록된 瘡(漆)의 주치와 효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칠의 효능은 ‘補中 續筋 填髓 破久瘀血年深積 積去後補性內行 通經脈 殺蟲’으로 추가 변경되어야 하며, 주치는 ‘久瘀血 深積 風寒 濕痺 咳嗽 九種心痛 腹肋積滯氣 經閉 疝瘕 小腸膀胱 疝痛 蟲積腹痛’으로 추가 변경되어야 한다.

### 3. 修治

11종 한약서에 기재된 瘡(漆)의 修治에 관한 기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鄉藥集成方』(1433)의 鄉藥本草 概論 諸品藥石炮製法度 木部 중의 乾漆에서는 “搗碎炒 熟用 不爾 損人腸胃<sup>26)</sup>”라 하여, 짓찧어 부스러뜨려 볶아 익혀서 사용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장을 상한다고 하였다. 「諸品藥石炮製法度」는 당시에 다루는 211종 약제에 대한 修治法을 총정리한 전문항목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따라서 「諸品藥石炮製法度」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다용한 약물임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당시의 표준 修治法임을 의미한다. 한편, 『鄉藥集成方』 卷第56 「女陰門·婦人雜病」 中에서<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검색(<http://jisik.kiom.re.kr/>)> “經驗方[二聖丸] 治婦人不曾生長 血氣 臟腑疼痛及治丈夫元氣 小腸氣撮痛 乾漆濕漆各一兩 ○右先將濕漆入銚子內煎一食飯 間住火與乾漆末拌和丸 如半皂子大 每服一丸 溫酒吞下無時 如元(疝)氣 小腸[膀]胱氣痛 牙關緊急 但格開牙關溫酒化一丸灌下 必安 怕漆人不可服”

25) 李在鎬, 乾漆의 解毒方法에 대한 文獻研究, 상지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논문, 2004. p.50. pp.28-29.

26) 『鄉藥集成方·卷第七十六·鄉藥本草概論·諸品藥石炮製法度·木部』 중에서<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검색(<http://jisik.kiom.re.kr/>)>

27) 二聖丸은 1097년 唐愼微의 經史證類備急本草 木部에서 최초로 기록이 나타나며, 한국에서는 『鄉藥集成方』에 최초의 기록이 나타난다. 한국의 『醫方類聚』와 『附方便覽』 및 중국의 『醫學入門』, 『本草綱目』에도 기록이 나타난다. 『經史證類備急本草』(1097) 『經史證類大觀本草』(1108)와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본초강목』에서는

출처를 ‘經驗方’이라 하였으며, 『의학입문』과 『부방편람』에서는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다. ‘경험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종권은 조선초기의 『東人經驗方』 혹은 『本朝經驗方』 또는 중국의 『吳氏經驗方』이라고 추측하였으나(김중권,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분석, 서지학 연구 제35집, 2006. p.225.), 『향약집성방』 및 『의방유취』의 경우 『동인경험방』과 『본조경험방』은 명확히 달리 표현하고 있으며, 『경사증류비급본초』에서도 ‘경험방’이라고 한 점을 볼 때, 명확한 것은 1097년 이전의 경험방 중의 하나에서 인용했거나 혹은 민간경험방을 최초로 채록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1) 『經史證類備急本草』(宋, 1097년) 木部 中에서 “經驗方 治婦人不曾生長血氣 臟腑疼痛不可忍及治丈夫元氣 小腸氣撮痛者 竝宜服二聖丸 乾漆一兩爲末 濕漆一兩先將濕漆入銚子內 熬如一食飯間 已來住火與乾漆末 一處拌和丸 如半皂子大 每服一丸 溫酒吞下無時 如元氣小腸膀胱氣痛 牙關緊急 但指開牙關 溫酒化一丸 灌下必安 怕漆人不可服”

(2) 『經史證類大觀本草』(宋, 1108년) 「木部·上品」(卷12~卷14) 中에서<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검색(<http://jisik.kiom.re.kr/>)> “經驗方 治婦人不曾生長血氣 臟腑疼痛不可忍及治丈夫元氣 小腸氣撮痛者 竝宜服二聖丸 乾漆一兩爲末 濕漆一兩先將濕漆入銚子內 熬如一食飯間 已來住火與乾漆末 一處拌和丸 如半皂子大 每服一丸 溫酒吞下無時 如元氣小腸膀胱氣痛 牙關緊急 但指開牙關 溫酒化一丸 灌下必安 怕漆人不可服”

(3) 『鄉藥集成方』(조선, 1433) 卷第56 「女陰門·婦人雜病」 中에서<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검색(<http://jisik.kiom.re.kr/>)> “經驗方[二聖丸] 治婦人不曾生長 血氣 臟腑疼痛及治丈夫元(疝)氣 小腸氣撮痛 乾漆濕漆各一兩 ○右先將濕漆入銚子內煎一食飯 間住火與乾漆末拌和丸 如半皂子大 每服一丸 溫酒吞下無時 如元(疝)氣 小腸[膀]胱氣痛 牙關緊急 但格開牙關溫酒化一丸灌下 必安 怕漆人不可服”

(4) 『醫方類聚』(조선, 1477) 卷211 「婦人門·六通治·二·大·全·本·草」 中에서<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검색(<http://jisik.kiom.re.kr/>)> “經驗方 治婦人不曾生長血氣 臟腑疼痛不可忍 及治丈夫元氣 小腸氣撮痛者 竝宜服二聖丸 乾漆一兩爲末 濕漆一兩 先將濕漆入銚子內 熬如一食飯間已來住火 與乾漆末一處拌和 丸如半皂子大 每服一丸 溫酒吞下 無時 如元氣小腸膀胱氣痛 牙關緊急 但指(大觀本草卷十二木部作“指”)開牙關 溫酒化一丸 灌下必安 怕漆人不可服”

(5) 『醫學入門』(明, 1575) 「本草分類·治燥門·乾漆」 中에서 “二聖丸 乾漆末一兩 濕漆一兩 熬食飯久 和丸如梧子大 每一丸 酒下無時 治婦人不曾生長血氣 臟腑痛甚 男子疝痛 牙緊灌下即安”

(6) 『本草綱目』(明, 1596) 卷三十五上 「木之二·漆」 中에서 “婦人血氣 婦人不曾生長 血氣疼痛不可忍及治丈夫疝氣 小腸氣撮痛者并宜服 二聖丸 濕漆一量 熬一食 傾入 乾漆末一量 和丸梧子大 每服三四丸 溫酒下 怕漆人不可服 經驗方”

인 후에 다시 乾漆 가루와 함하여 환을 만든다고 하여 乾漆과 濕漆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의 修治法을 제시하고 있다.

『醫學入門』(1575)에서는 “凡使乾者 須搗碎炒煙出不爾損人腸胃 濕者煎乾<sup>28)</sup>”이라고 하여 볶는 법에 대하여는 연기가 나올 때까지 한다는 설명과 습한 것은 다려서 말린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本草綱目』(1596)의 “乾漆修治”에서는 “乾漆入藥 須搗碎炒熟 不爾損人腸胃 若是濕漆 煎乾更好 亦有燒存性者乾漆<sup>29)</sup>”이라 하여 약에 쓸 때는 마른 상태로 채취된 경우는 搗碎 炒熟하고 습한 상태로 채취된 경우는 煎乾 한다고 하여 乾漆과 濕漆의 修治를 명확히 구별하여 설명하였으며, 또한 불에 태운 후의 제도 사용한다고 하였다.

『東醫寶鑑』(1612)에서는 “入藥須搗碎炒令煙出(약으로 사용할 때에는 절구에 찧어 잘게 부순 후에 불에 연기가 나도록 태워서 사용한다<sup>30)</sup>”라고 하여 搗碎 炒令煙出의 과정으로 역시 설명하고 있다. 한편, 湯液序例 修製法 중에서는 “血痰·癥瘕痛 以乾漆水炒<sup>31)</sup>”라 하여 血痰·癥瘕痛의 경우에는 水炒한다고 밝히고 있다.

『景岳全書』(1624)에서는 “用須炒熟入藥<sup>32)</sup>”이라 하였으며, 『濟衆新編』(1799)의 藥性歌에서는 “炒用<sup>33)</sup>”이라 하였고, 『方藥合編』(1884)의 藥性歌에서는 “炒熟 或 燒存性<sup>34)</sup>”이라 하였다.

11종 한약서에 기재된 옷(漆)의 修治法에 관한 기

(7) 『附方便覽』(조선, 1855) 卷之26 「胞婦人血氣」中에서<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검색(http://jisik.kiom.re.kr)> “婦不曾生長 血氣疼痛不可忍 及丈夫疝氣 小腸氣撮痛者 宜服(二聖丸) 濕漆一兩 熬一食頃 入乾漆酒下 柏漆人不可服”

28) 李梴 編纂. 原本編註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85. p.802.

29) 李時珍 撰. 本草綱目. 文淵閣四庫全書(774).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50.

30)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7. p.739.

31)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7. p.672.

32) 張介賓 撰. 景岳全書. 文淵閣四庫全書(778). 서울. 대성문화사. p.386.

33) 康命吉 著. 김신근 주편. 한국의학대계(18)·濟衆新編. 여강출판사. p.593.

34) 黃度淵 原著. 南山堂 編輯局譯. 對譯證脈 方藥合編(辨證增補版). 서울. 남산당. 1987. p.230.

록을 검토해 보면, 濕(生)漆에서 乾燥된 상태로의 1차 법제과정으로 자연건조(漆桶中自然有乾者) 혹은 끓여서 말리는 과정(煎乾)이 있었으며, 건조된 상태에서 乾漆로의 2차 법제과정으로는 잘게 갈아서 충분히 볶거나(搗碎 炒熟) 잘게 갈아서 연기가 날 때까지 볶는 과정(搗碎 炒令煙出)을 거친 후에 사용하였으며, 혹은 燒存性으로 사용하였다. 기타 血痰 癥瘕痛의 경우에는 水炒하여 사용하였으며, 乾漆과 濕漆을 같이 修治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대한약전의 한약규격주해」중 건칠에 대한 修治法은 없으며, 단지 用法으로 ‘煎服’한다는 기록만 있다. 따라서 건칠의 修治法으로 ‘自然乾燥或煎乾 後搗碎 後炒熟或炒令煙出’을 추가함이 타당하다.

	현행	개선	비고
修治	無	自然乾燥或煎乾 後搗碎 後炒熟或炒令煙出	추가

표 3. 「대한약전의 한약규격주해」중 건칠의 수치개선안

#### IV. 結論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되는 11종 한약서를 대상으로 옷(漆)에 관한 主治와 效能 및 修治法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얻었다.

1. 11종 한약서에 기록된 옷(漆)의 주치와 효능은 첫째, 補中續筋骨 填髓腦 安五臟 久服輕身耐老 등으로 설명한 上品藥으로써 주로 생명을 養하고 天에 應하여 多服 久服하여도 사람을 상하지 않고 輕身 不老 延壽하는 효과, 둘째, 破久瘀血年深積하면서 積去 後補性內行하여 적취와 어혈의 치료에서 攻補兼施할 수 있는 효과, 셋째, 어혈과 적취의 치료효과로써 겸하여 風寒濕痺, 止咳嗽及九種心痛 腹積滯氣를 다스릴 수 있는 효과, 넷째, 通經脈으로 女人經脈不通及 疝瘕 小腸膀胱疝痛 去虻蟲할 수 있는 효과, 다섯째, 生用하여 長蟲을 제거하는 효과 등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2. 「대한약전의 한약규격주해」 중의 건칠 효능은 ‘補中 續筋 填髓 破久瘀血年深積 積去後補性內行 通經脈 殺蟲’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주치는 ‘久瘀血 深積 風寒濕痺 咳嗽 九種心痛 腹肋積滯氣 經閉 疝瘕 小腸膀胱疝痛 蟲積腹痛’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11종 한약서에 기재된 옷(漆)의 修治法에 관한 기록을 검토해 보면, 濕(生)漆에서 乾燥된 상태로의 1차 법제과정으로 자연건조(漆桶中自然有乾者) 혹은 끓여서 말리는 과정(煎乾)이 있었으며, 건조된 상태에서 乾漆로의 2차 법제과정으로는 잘게 갈아서 충분히 볶거나(搗碎 炒熟) 잘게 갈아서 연기가 날 때까지 볶는 과정(搗碎 炒令烟出)을 거친 후에 사용하였으며, 혹은 燒存性으로 사용하였다. 기타 血痰 癥瘕痛의 경우에는 水炒하여 사용하였으며, 乾漆과 濕漆을 같이 修治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4. 「대한약전의 한약규격주해」 중의 건칠 修治法으로 ‘自然乾燥或煎乾 後搗碎 炒熟或炒令烟出’을 추가함이 타당하다.

### 參考文獻

#### <논문>

1. 朴官宇. 옷나무와 옷 利用의 歷史的 考察.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2. 李在鎬. 乾漆의 解毒方法에 대한 文獻研究. 상지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석사논문. 2004.
3. 송미선, 김윤상, 임은미. 건칠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2. 15(1).
4. 김태희, 이경민, 권기록, 최성모. 옷에 대한 문헌적 고찰. 대한약침학회지. 2002. 5(1).
5. 신현규, 황대선, 김삼수, 김용진. 기성한약서 11종의 기원에 대한 서지학적 근거와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7. 20(1).

6. 김중권. 향약집성방의 인용문헌 분석. 서지학 연구 제35집. 2006.

#### <단행본>

1. 作者未詳. 孫星衍 輯本. 神農本草經. 서울. 醫道韓國社. 1976. p.40.
2. 陶弘景 集. 尚志鈞 輯校. 名醫別錄(輯校本).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1986. p.37.
3. 陶弘景 撰. 中國古典醫學叢刊本草經集註. 상해. 1986. p.84.
4. 李梴 編纂. 醫學入門. 서울. 남산당. 1985. pp.801-802.
5. 康命吉 著. 김신근 주편. 한국의학대계(18)濟衆新編. 여강출판사. p.593.
6. 李時珍 撰. 本草綱目. 文淵閣四庫全書(774).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50.
7. 張介賓 撰. 景岳全書. 文淵閣四庫全書(778). 서울. 대성문화사. 1995. p.386.
8. 金循義, 盧重禮 等撰. 동의과학원 校閱監守. 醫方類聚. 서울. 여강출판사. 1994.
9. 許浚 著.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7. p.672, 739.
10. 黃度淵 原著. 南山堂 編輯局譯.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版). 서울. 남산당. 1987. p.230.
11. 張元素, 李東垣.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醫學全書珍珠囊藥性賦.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057.

#### <기타>

1. 한의학연구원 한의학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중의 고문헌정보 검색.
- 1) 作者未詳. 鄉藥救急方.
- 2) 盧重禮, 俞孝通, 朴允德 等. 鄉藥集成方.
- 3) 李景華. 廣濟秘笈.
- 4)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 5) 黃度淵. 附方便覽.
- 6) 作者未詳. 本草精華.

7) 艾晷 增補. 唐愼微 著. 經史證類大觀本草.

